모든 행위에서 기름을 빼자

(여호수아 23:1~16)

6.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7.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8.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9.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10. 너희 중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11.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모든 행위에서 기름을 빼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모든 행위에서 기름을 빼자'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지낼 때에 즐겨 찾던 곰탕집이 있었습니다. 을지로1가와 무교동 사이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명동과 코엑스에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토렴을 해서 나오는 곰탕집이었는데 소개를 받아서 처음 갔을 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은 곰탕에 기름이 둥둥 떠서 나왔던 것입니다. 소개해 주신 목사님께 '맛도 없고 기름만 떠 있었다'고 했더니 '주문을 잘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몇 번 가면서 알게 된 것은 이집의 메뉴가 곰탕과 수육 밖에는 없었습니다. 곰탕 한 가지 메뉴를 팔아도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즐기기 위해서는 암호를 알아야합니다.

'맛배기'라는 것이 있는데 밥을 적게 주고 고기를 좀 더 주는 것입니다. '스무공'이라고 하면 고기가 아주 푸짐하게 올라오고 비싸집니다. '깍국'은 깍두기 국물을 아예 넣어서 토렴을 해줍니다. '통닭'은 생달걀을 곰탕에 풀어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호가 있어서 주문할 때에 조심해야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주문은 '기름빼기'라는 주문입니다. 안 그러면 기름이 둥둥 떠서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쇠고기의 기름이 포화지방산이 많아서 동맥경화에 걸리고 마음도 찝찝합니다. 기름을 빼고 나면 맑고 담백한 국물이 나오는데 맛이 굉

장히 깊고 짙습니다. 저는 수저로 국물을 떠먹는 적이 없이 그릇 채로 들고 마시는데 최고였습니다.
이 쇠고기가 맛은 있는데 기름을 빼야만 합니다. 집사람이 갈비찜을 할 때에도 어떨 때는 두 번씩 삶아서 찬 곳에 두었다가 기름을 하얗게 굳혀서 걷어냅니다. 덕지덕지 하얗게 앉은 기름을 보면 정말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데,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비유가 적용될 수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삶이 좀 마음에서 원활하고 기쁘고 생동감이 있으려면 우리의 행동에서 기름기를 빼내야합니다. 그러면 삶이 담백해지면서 맛이 깊어지고 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살았는데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자식 키운 것만 남았다고 하는데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나는 내 일로 바빠서 움직였을 뿐이기에 자식이야 내가 키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자란 것이죠. 이렇듯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기름기를 빼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된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훈을 남기게 됩니다. 아직 복지는 완전히 다 정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제비 뽑아 할당된 땅이,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 중의 이방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더 찾고 정복해야 하지만 찾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유지해 나가야만 합니다. 칭기즈칸과 알렉산더의 대왕국의 문제는 차지하긴 많이 차지했어도 유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지를 정복하고 차지하고 유지하기 위한 신의 한 수를 가르쳐줍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인데 새삼스럽게 신의 한 수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지를 유지한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매사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허락하신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우리의 삶이 담백하면서도 깊고 진한 국물 맛이 나는 삶이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마음이 푸짐하고 한 달을 살아도 푸짐합니다. 잘못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다 잘 되고 형통할 수 있는데, 이 말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8, 11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사랑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내가 마음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거나 특히 싫어하는 것이 있을 때에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음은 사랑하는 것에 닿아서 반응하게 되고, 그 반응에 신호를 받은 육체가 움직이며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좋아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뒤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은 돈을 좋아하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마음으로 가족을 최고로 생각하면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지금 현재 좋아해서 머물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율법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율법을 배척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배척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배척할 대상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율법의 문자가 내게 지시하는 행동 규정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좋아하는 대상이 하나님인가 돈인가 가족인가 건강인가 사업인가 우리나라의 번영인가 교회의 부흥인가를 보아야만 하는데,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에 마음이 머물고 있는 한 율법은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음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해서 해결해야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좋아한 결과이지, 절대로 다른 것을 좋아하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대상을 좋아하면서도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와 맞서 싸웠습니다. 마음으로는 돈을 좋아하지만 율법을 지킵니다. 이 세상 물질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돈이기 때문에 돈 많이 달라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것이죠. 이렇듯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6절 하반부를 보면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그 좋아하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로 치우치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싫어하는 것이 있어서 마음이 반응해서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은 좌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내 행위 속에 싫어함이 끼어있고 좋아함이 끼어들어 있는 것이 특별히 이 세상에 대한 삶의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든지, 아니면 돈이나 명예나 인기든지 부흥 같은 대상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지 나라든지 회사든지 사업체든지,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과 바라는 것이 있어서 행동하는 것은 우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싫어하는 것도 생기게 되고 그것에 의해 행동하게 될 때에 좌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것을 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목동 일을 하던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히시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옳은가 그른가를 가늠하는 표준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 왕의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보여준 신앙을 좋아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다윗이 올라가게 된 왕

의 자리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삶의 기름기가 끼게 됩니다. 삶이 뻑뻑해지고 결국은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되어서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 왕의 자리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신앙은 좋아해야 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자리를 싫어합니다. 즉 다윗 왕의 자리를 좋아하지도 말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자리를 싫어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내 모든 행동의 기름기가 하얗게 끼어들어서 우리의 삶이 담백하고 깊은 맛의 곰탕 같이 기가 막히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이 이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족에 대해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좋아함과 싫어함의 기름기가 낀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관계가 복지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내가 좋아함과 싫어함을 내 행동에서 기름빼듯이 빼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생활을 할 때에 좋아함과 싫어함의 하얗게 굳은 쇠기름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대로 내 마음이 이 지상의 수평면상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수직선상으로 로켓의 추진력이 로켓을 쏴서 올라가듯이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평면상에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수직선상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눅14: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라고 하십니다. 마치 이 세상을 싫어하듯이 박차고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고, 좋아함과 싫어함이 항상 수직선상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평선상에서 움직이면 내 좋아함과 싫어함이 기름기처럼 끼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할 때조차도 내 마음이 이 세상의 수평면상에서 머물며 이것저것 좋아하거나 싫어하면 기도 중에도 기름기가 끼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릴 리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다고 믿고 숭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상자체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의 상징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성취됨의 상징입니다. 내 소원을 겉으로 드러내서 형상화 시킨 것이 우상이므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로 인해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세상의 나를 위한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담백합니다. 나의 좋아함과 싫어함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갖고 계신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율법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기록된 율법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모든 순간을 율법이 규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좋아하심과 하나님의 싫어하심을 따라서 내 육체의

행동이 나타나면 담백한 행동이 되는데, 이 세상의 무엇인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해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름기’는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입니다. 좋아서 행동하면 우로 치우치는 것이고, 싫어서 행동하면 좌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이 율법을 지키려면 하나님을 좋아해야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평면상에서 살아갈 때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들이 마음에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서 행동까지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나면 얼른 그 좋아함에 따라서 우로 치우치게 하는 기름기를 빼야 되고, 싫어함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좌로 치우침에 따른 기름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배고파 죽겠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뻐 죽겠네, 돈이 많이 벌려 기뻐 죽겠네, 미워 죽겠네.’라고 사용합니다. 좋아도 죽고 싫어도 죽습니다. 한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죽겠네.’를 ‘살겠네.’로 바꾸자는 운동 같은 것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겠네.’로 써버리세요. 이 세상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생길 때마다 ‘죽겠네.’를 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좋아 죽겠어’라는 말은 ‘아파트가 너무 좋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말을 문자대로 받아들여서 ‘아파트가 좋으니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예뻐 죽겠으면 ‘내 자식이 예쁘니 나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사업이 안 돼서 죽겠어도 십자가 붙잡고 사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을 싫어해서 행동하면 반드시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제자들이 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싫어서, 출세를 하고 싶어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식민지가 싫어서 주님을 따라 다녔고 출세가 좋아서 주님을 따라 다녔는데 이것들이 다 무효가 됩니다. 주님의 행동을 보면 식민지가 된 것이 싫으셔서 행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 것만 보고 행동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겠네, 죽겠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후4: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좋아서 움직이든 싫어서 움직이든 그 다음에 ‘죽겠네.’를 붙이는 것입니다. 좋아서 십자가에서 죽겠네, 싫어서 십자가에서 죽겠네, 죽어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겠네.’를 붙이면, 좋아함의 우로 치우치는 행동과 싫어함의 좌로 치우치는 행동이 마음에서 싹 빠져나갈 것입니다. ‘죽겠네.’라고 노래를 부를 때에 내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히 살겠네.’라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순교 같은 현장에서도 내가 싫어하는 마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좋

아하실까 생각해야 합니다. 사업이 안 되고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내 싫어하는 마음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알려면 '내 자식이 공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싫어서 십자가에서 죽겠네, 내 남편이 사업을 잘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 돈을 쓰지 말고 좋아서 십자가에서 죽겠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아서 싫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는 기름기를 싹 뺀 담백하고 깊은 맛을 내는 곰탕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세상 상황이 좋아도 십자가에서 죽겠네, 싫어도 십자가에서 죽겠네, 하나님만 좋아하여 하나님만으로 살겠네.'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간단한 말씀대로 복지를 찾고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